

##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 연<br>번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br>위원<br>(참석인원/<br>총인원) | 방송국<br>경영진<br>(명) | 경영진<br>외(명) | 총<br>인원<br>(명) |      |  |  |
| 1      | '26.8.31. | 대전MBC<br>4층 회의실<br>(대면회의) | 6/10                        | 5                 | 1           | 12             | ○    |  |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백강희 부위원장,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br>편성 | 채널<br>구성·운영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br>심의규정 | 합계 |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br>(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           | 11     | 3  | -              | 3  | 17 | -          | 17 |

#### 나. 사업자 반영

| 구 분 | 수 용 | 의견 참고 | 반 론 | 합계 |
|-----|-----|-------|-----|----|
| 건 수 | 17  | -     | -   | 17 |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보도  | <b>&lt;청소년 의견 수렴 관련&gt;</b><br><시시각각>에서 청소년 '협오 놀이' 주제를 다루면서 논의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음. 미성년자를 방송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겠지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사전 인터뷰나 현장 취재 방식 등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해주길 바람.                                        |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의 프로그램 제작 시 패널 출연이나 사전 인터뷰 등 반영하도록 제작자에 지시함. <26. 8월 조치>                                                                      | '26.7월 |
| 보도  | <b>&lt;연구 성과 관련 이미지 사용&gt;</b><br>지역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음.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시를 활용해 이미지로 보여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일부 출연연 기사들은 이미 시가 제작한 연구 모식도를 활용한 이미지를 뉴스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음. <26. 8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조례 제정, 어린이 병원 관련 보도&gt;</b><br>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 조례 제정과 내포 어린이 병원 개원 관련 보도가 있었음. 문제는 그 이후 예산 확보나 실행 능력이 취약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이외로 많음. 그 후속 부분도 계속 감시해 주었으면 함.                                                                     | 9월 10일 '환아 느는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휘청' 등 관련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 <26. 9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민선9기 지방정부 정책 보도&gt;</b><br>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와 닿지 않음.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등도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 홍보 정도로만 생각됨                                                           | 민선9기 충남의 시 대전환 관련 기사와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 후속 진행 상황, 대전시 트램 건설 문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여론 결집 등 세부적 현안 등을 다루고 있음. <26. 8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택시기사 고령화 보도&gt;</b><br>택시 기사가 고령화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들이 촉발된다고 보도하면서, 전반부에는 고령화 원인이 고노동 저임금으로 청년유입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후반부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을 완화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도했음. 이 부분은 해결책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음. | 관련 후속보도 시 택시업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하도록 취재기자에 전달함. <26. 9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gt;</b><br>'대전시 지역 국회의원 원팀' 보도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시장, 시당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발원들만 전달이 됐고 대전 시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견은 없었음. 일자리와 청년층 유입에 대한 인터뷰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음                                                       | 9월 3일 '대전이 1순위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나' 뉴스를 통해 실제 기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과제 등을 보도함. 충남의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보도도 있었음. <26. 9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뉴스 정보 노출 관련&gt;</b><br>'홀플러스 재개장' 보도와 '토토출 푸드페스타 개최' 보도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 지역 축제나 생활 정보를 다루는 뉴스에서는 자막 등으로 시간, 장소, 내용 등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음.                                                                      |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재 디지털콘텐츠 재정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26. 9월 조치>                                                                               | '26.8월 |

|      |                                                                                                                                                                                                 |                                                                                                                              |        |
|------|-------------------------------------------------------------------------------------------------------------------------------------------------------------------------------------------------|------------------------------------------------------------------------------------------------------------------------------|--------|
| 보도   | <b>&lt;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보도&gt;</b><br>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굵직한 정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단발성 보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우리 지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음                                                     |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양한 과제 등을 짚어보고 있음. <26. 9월 조치>                                                                       | '26.8월 |
| 보도   | <b>&lt;공장화재 등 재난사고 보도&gt;</b><br>대화동 자동차배터리 공장 화재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해수욕장 폐장에도 이용객이 있는데 안전 대책이 없다는 보도에서는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소개해 주었으면 함                             | 사고나 재난 보도 시 안전교육이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 등도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담당 기자에게 전달함.<br><26. 9월 조치>                                                | '26.8월 |
| 교양   | <b>&lt;오지랖 보건실2 관련&gt;</b><br>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학생들의 깊이 있는 상담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고민이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었음. 더 다양한 고민들을 이끌어 내서 다뤄주길 바람                                             | 편집과정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작해 6부작 방송을 완료함.<br><26. 8월 조치>                                                                | '26.7월 |
| 교양   | <b>&lt;‘땀나는 여행’ 코너 관련&gt;</b><br>최근 지자체들이 당일형 보다는 체류형 관광지 소개에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음. ‘땀나는 여행’ 말미에 연계 관광 자원이나 숙박, 먹거리 등을 같이 소개해서 체험관광지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여름 피서철을 맞아 ‘땀나는 여행’ 코너에서 지역의 다양한 체험형 관광지를 소개 (8.19 홍성군 포도 체험농장 / 8.26 아산시 빙상장과 로컬푸드 가공센터)<br><26. 8월 조치>                     | '26.7월 |
| 기타   | <b>&lt;홈페이지 개별 프로그램 게시판&gt;</b><br>매월 전체 시청자 의견 처리건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별 시청자의견은 많지는 않지만 답변을 달고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러움                                                              | 각 프로그램별로 있던 시청자 의견 게시판은 모두 폐지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사연 게시판은 제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서 통합 접수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함. <26. 9월 조치> | '26.8월 |
| 기타   | <b>&lt;유튜브, 숏폼 활용 관련&gt;</b><br>온통대전, 대전의료원 등 어렵게 느껴지는 정보 및 지역 소식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브나 숏폼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음.<br><br><b>&lt;대전MBC SNS 채널 관련&gt;</b><br>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은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등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임 | - 카카오톡 채널 리뉴얼 완료함 (제보 및 다음뉴스채널 등 타 플랫폼으로 전환 안내)<br>- X 뉴스 동영상 피드 재개 예정 등 전체 리뉴얼 작업 진행 중.<br><26. 9월 조치>                      | '26.8월 |
| 기타   | <b>&lt;유튜브 진행자 불만-시청자의견&gt;</b><br>유튜브 진행자 불만 건은 몇 번 나왔던 내용으로 지난번에도 시청자의견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음.                                                                                        | -기존 파일럿 해설자 종료함<br>-프로 선수 출신 해설자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br><26. 8월 조치>                                                                  | '26.8월 |
| 총 건수 |                                                                                                                                                                                                 | 14 건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임기) |
|-----|------|---------|------|--------|
|     |      | 해당사항 없음 |      |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 평가기준                                                                                     | 해당여부 |
|------------------------------------------------------------------------------------------|------|
|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br>※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    |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br>(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문   | 비 고<br>(총 선임기간) |
|------|-----|--------------------------------------|---------------------|--------|-----------------|
| 위원장  | 김욱  | 배재대학교 총장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문화단체   | 25.5.1~27.4.30  |
| 부위원장 | 백강희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한국언론학회              | 언론학술단체 | 25.5.1~27.4.30  |
| 위원   | 문선혜 | 전원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25.5.1~27.4.30  |
| 위원   | 박은숙 |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 문화단체   | 25.5.1~27.4.30  |
| 위원   | 이현욱 |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 한국영화교육학회            | 언론학술단체 | 25.5.1~27.4.30  |
| 위원   | 최승인 |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소외계층대변 | 25.5.1~27.4.30  |
| 위원   | 조원희 |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br>(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 경제단체   | 25.5.1~27.4.30  |
| 위원   | 조정현 | 대전위캔센터장                              | 대전YWCA              | 여성단체   | 26.5.1~28.4.30  |
| 위원   | 박지현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노동단체   | 26.5.1~28.4.30  |
| 위원   | 김혜영 |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 대전광역시<br>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인권단체   | 26.5.1~28.4.30  |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b>&lt;연구 성과 관련 이미지 사용&gt;</b><br>지역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음.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시를 활용해 이미지로 보여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카이스트, 화학연구원, 생명연구원은 시를 활용한 연구 이미지 모식도 작업들을 방송사와 콜라보를 시작함. 실제 연구 보도 자료라든지 성과물이 나올 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식도로 시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   |    |    |
| 보도 | <b>&lt;교권 관련 보도&gt;</b><br>‘교권 보호관’ 보도 관련해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 때 교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 교권 이면에 교육권 침해 등 상반된 내용도 있어서 어떤 부분의 교권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교권은 선생님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 방어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 전체적으로 교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짚어보는 계기성 보도를 마련하겠음                                                                           | ○   |    |    |
| 보도 | <b>&lt;조례 제정, 어린이 병원 관련 보도&gt;</b><br>회귀 난치성 질환 관련 조례 제정과 내포 어린이 병원 개원 관련 보도가 있었음. 문제는 그 이후 예산 확보나 실행 능력이 취약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이외로 많음. 그 후속 부분도 계속 감시해 주었으면 함.                                                                     | 대전 세종에만 조례가 없어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음.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에 대한 문제들까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후속보도를 이어가겠음.                                                             | ○   |    |    |
| 보도 | <b>&lt;민선9기 지방정부 정책 보도&gt;</b><br>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달리 있음.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등도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 홍보 정도로만 생각됨                                                            | 민선9기 정책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도록 하겠음. 최근 충남도가 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세우는 기획단을 출범시키는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음                                                        | ○   |    |    |
| 보도 | <b>&lt;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도&gt;</b><br>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청과 대학의 입장만 서로 쟁점이 되는 사항 중심으로 보도했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좀 더 필요했고, 학부모나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음.                                                                              | 지방재정 교부금에 대한 갈등이 촉발돼서 그 부분을 주목한 것임. 오랜 세월동안 투입하면서 달라진 교육 환경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짚도록 하겠음.                                                            | ○   |    |    |
| 보도 | <b>&lt;택시기사 고령화 보도&gt;</b><br>택시 기사가 고령화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들이 촉발된다고 보도하면서, 전반부에는 고령화 원인이 고노동 저임금으로 청년유입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후반부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을 완화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도했음. 이 부분은 해결책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음. | 택시업계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기존의 관행과 현실과의 괴리, 개인택시 면허 진입 장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최근에는 고령층의 택시 이동의 문제도 있음. 개인택시가 고령화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의 보완성에 대한 문제들도 짚는 등 전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음 | ○   |    |    |

| 구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b>&lt;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gt;</b><br>‘대전시 지역 국회의원 원팀’ 보도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시장, 시장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발언들만 전달이 됐고 대전 시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견은 없었음. 일자리와 청년층 유입에 대한 인터뷰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음            | 공공기관 이전으로 막연하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토맥이 되는지 면밀하게 짚도록 하겠음.                                                                 | ○   |    |    |
| 보도 | <b>&lt;뉴스 정보 노출 관련&gt;</b><br>‘홀플러스 재개장’ 보도와 ‘토토즐 푸드 페스타 개최’ 보도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 지역 축제나 생활 정보를 다루는 뉴스에서는 자막 등으로 시간, 장소, 내용 등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음.                          | 뉴스에서 안내 자막 처리 시간이 짧아 시청자가 정보를 얻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함. 지역 축제나 지역사랑 상품권 한도, 사육처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들은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세부적인 정보를 담도록 하겠음                    | ○   |    |    |
| 보도 | <b>&lt;동서 트레일 보도&gt;</b><br>동서트레일 관련 보도에서 대전 구간 야영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동서트레일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대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추진 배경에 대한 간략한 보도가 필요했음                    | 스트레이트 뉴스에 구체적인 사실과 취지, 운영 성격 등의 내용들을 모두 담는 데 한계가 있음. 요즘 여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뉴스에서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음                                       | ○   |    |    |
| 보도 | <b>&lt;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보도&gt;</b><br>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굵직한 정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단발성 보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우리 지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음.                                       | 충청권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석탄 화력 폐지에 대한 특별법도 이번에 입법이 됐지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인지 기획 보도를 준비하겠음 | ○   |    |    |
| 보도 | <b>&lt;공장 화재 등 재난사고 보도&gt;</b><br>대화동 자동차배터리 공장 화재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해수욕장 폐장에도 이용객이 있는데 안전 대책이 없다는 보도에서는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소개해 주었으면 함               | 공장 화재 보도에서는 화재에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가 시청자에게 더 중요한 정보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보도에 주력하겠음.                                        | ○   |    |    |
| 교양 | <b>&lt;프로그램 확장성 관련&gt;</b><br>‘오지랖’이라는 이름이 가진 확장성을 바탕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오지랖 사무실’,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오지랖 청춘실’, 지역의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오지랖 사랑방’ 등 시리즈로 발전시켜 대전MBC 소통 콘텐트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음. | 오지랖 보건실에 대한 확장성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작진에게 공유하겠음. 최근 지역소멸, 인구감소, 청년일자리 등이 이슈인데 선한 오지랖의 영향력을 다른 조직으로 확산시키면 좋을 것 같음.                                 | ○   |    |    |

| 구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b>&lt;후속 이야기 쿠키영상 관련&gt;</b><br>'오지랴 보건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특성을 살려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까지 짧게 후속으로 보여주면 프로그램의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될 것 같음                                                                 | 오지랴 보건실과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인생내컷>의 후속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시즌제 프로그램 제작시 후속 변화에 대한 쿠키 영상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   |    |    |
| 교양 | <b>&lt;오지랴 보건실 학교 선정 관련&gt;</b><br>'오지랴 보건실' 유튜브 댓글에 “저희 학교도 와주세요”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                                                                                         | 대전지역은 대전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은 후 3개를 선정했고, 충남지역은 충남교육청에서 직접 2개를 선정함. 나머지 1개는 제작진이 직접 선정함                                                               | ○   |    |    |
| 기타 | <b>&lt;유튜브, 숏폼 활용 관련&gt;</b><br>온통대전, 대전의료원 등 어렵게 느껴지는 정보 및 지역 소식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브나 숏폼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음.<br><br><b>&lt;대전MBC SNS 채널 관련&gt;</b><br>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은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등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임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 밀착형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br>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재접근을 통해 지상파방송에서 아쉬운 정보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도 운용토록 하겠고, 업데이트를 통해 주목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    |    |
| 기타 | <b>&lt;홈페이지 개별 프로그램 게시판&gt;</b><br>매월 전체 시청자 의견 처리건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별 시청자의견은 많지는 않지만 답변을 달고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러움                                                              | 프로그램별 시청자의견은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PD와 작가들이 보고는 있음. 되도록이면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걸 기회 삼아서 시청자 게시판 통합 운영 등 편성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   |    |    |
| 기타 | <b>&lt;유튜브 진행자 불만-시청자의견&gt;</b><br>유튜브 진행자 불만 건은 몇 번 나왔던 내용으로 지난번에도 시청자의견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음.                                                                                        | 이번 건은 야구중계 관련해서 전문적인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유튜브 입중계 라이브는 전문적인 방송 중계와 다르게 재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시청자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함                                                | ○   |    |    |

- ☐ 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오후 4시
-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백강희 부위원장,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지금부터 8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학교 회의가 겹쳐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잠시 후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6건입니다. 자막 불만 1건, 진행자 불만 2건, 기타 문의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옥 위원  
이전에도 유튜브 야구 중계 진행자 불만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청자의견에 올라오지 않았는지요?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8월 11일 지난번과 다르게 야구중계 관련해서 해설자가 전문적으로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야구장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재미로 보는 스포츠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라디오 야구 중계를 할 때는 아나운서와 야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 라이브는 재미에 중점을 두고 입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해설을 요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작진에 전달해서 제작팀 구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바로 정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5월에 새로 위촉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어서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한 달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현욱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대전MBC 유튜브나 쇼츠를 보고 있는데 내용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전 지역 소식을 알려주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의 소식들이 뉴스로 많이 방송되고 있지만 온통대전 2.0, 대전의료원 등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쇼츠 형태로 60초 정도 그런 소식들을 안내할 수 있는 소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의료원과 온통대전 뉴스는 20대, 30대가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츠를 통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실수가 모자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다뤄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AI를 활용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대체 이미지로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승인 위원

뉴스 보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참교육 드라마 영향으로 교권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선입견도 있고 편파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월 13일 보도에서 ‘충남 교육청 교권 침해 조사관 갈등 조정관 선발’, 8월 22일에는 ‘교권 보호관 무너진 교단을 구할까’ 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교권을 정의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권, 교사들 입장에서는 근로 환경에 대한 교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 양육, 돌봄, 교육과 관련된 교권, 이렇게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권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쪽에 치우치거나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권 관련된 내용들이 선생님들에게 집중되면 이면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들... 아이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보도하실 때 어떤 부분의 교권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만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막강한 힘을 주겠다는 느낌이거든요. 포괄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을 사회 이슈로 잡고 있다면 특정 학생들과 특정 지역 군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감시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8월 27일 뉴스데스크에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정로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희귀 난치병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려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조례는 잘 만드는데 그 이후 예산을 끌어오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능력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나 언론에 많이 나오면 많이 개입하지만 뒤에 가서는 ‘교육청의 문제다’, ‘예산의 문제다’라고 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맞춰져 뒤에 실행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이나 보완도 안 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내포 어린이 병원이 2028년 개원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용 중에 당초에는 연세대 병원에 위탁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결국 단국대 병원에서 2028년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대전 세종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이 2018년에 시작해서 5년 후인 2023년도에 개원을 했지만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인 이해가 개입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공공의료원을 민선 9기 내인 2030년 이내에 개원하겠다고 했는데 병원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어린이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예산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의 병원시스템들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까지 인프라로 구축이 되는 거라서 지자체에서 병원 개원을 발표했을 때 그 후속 부분도 언론에서 계속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지적장에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2분기 좋은 프로그램상까지 수상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애써주신 제작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오지랖 보건실>시즌1에 이어서 시즌2를 편성했다는 게 흥미로워서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고민을 친구, 교사, 교장선생님, 진행자까지 모두 참여해서 풀어가는 형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민의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깊이 있는 것까지, 진로부터 시작해서 정체성까지 이어졌습니다. 교사들의 고민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학교 전체를 구성원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노은고등학교 편에서 교장선생님 잔소리가 고민이라는 학생을 다루면서 작은 불편함도 다루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대전외고에서는 한독 복수 국적 가진 학생이 자기 정체성이나 환경 적응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들어주었는데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오지랖 보건실>이 정말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큰 강점이라고 봤던 부분들은 그 고민의 정답을 전문가가 나와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가지고 있거나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점은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방식들은 좋았는데 여기에 특성을 살려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후속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은고등학교에서 방송 이후에 학생이 어떤 측면에서 교장 선생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교장 선생님은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둘이 어떤 관계가 정립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대전외고 경우에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짧은 코너나 온라인 콘텐츠로 후속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민을 이야기 했다는데 그치지 않

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고민을 공동체 참여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조에 실제 변화를 확인했다는 것까지 하나 더 넣어주시면 프로그램 의도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오지랖’이라는 이름이 가진 확장성인데요. 오지랖 보건실은 자연스럽게 학교 상황들이나 학교 공간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 회차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프로그램 방식을 학교 밖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지랖 교실’,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들, 세대차이, 인간관계, 갈등 요소 등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오지랖 사무실’, 또 청년들의 고민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오지랖 청춘실’,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오지랖 사랑방’ 등 시리즈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출연 대상을 넓히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오지랖을 부리면 서로 이해하고 관계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프로그램 안에 녹아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대전MBC가 소통의 콘텐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오지랖’이 대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대전MBC만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스핀 오프’ 같은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위원  
8월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 9기 지방 정부가 들어서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이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4일 폭염 대비 정책으로 ‘충남에 찾아가는 냉방 버스 12대 농촌 현장 배치’ 보도와 8월 7일 기획 보도 ‘AI 대전환 일상을 바꾸다’라는 보도입니다. 기획 뉴스 제목으로만 봐서는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지?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뉴스를 봤는데 실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황정아 의원이 나왔던 대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든지, 이후에 해결 과제로는 전력난이나 환경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정도만 보도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나 대전시에서 얘기할 때도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변화된다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달라지나?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지?’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6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관련된 교육청과 대학의 인식차가 뚜렷하다는 보도에서는 대학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쟁점이 되는 사항 중심으로만 방송이 됐는데요. 듣다 보니까 그 전에 55년 동안 교육청에서 받은 지방교육재정은 어떤 식으로 받아왔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기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의 체계와 달라지는 내용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전국 300여개의 교육 관련 단체와 개편 반대를 위한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고,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부금이 어떻게 달라지기에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인터뷰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중심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보도에서 ‘백발’만 남은 택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택시 기사가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심각한데 시민이 걱정하는 안전사고의 문제들이 고령화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고령화되는 원인이 청년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12시간 넘는 노동에도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초반에 보도되다가 이와 관련된 택시 업체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 택시 기사 뽑기도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이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억 대가 넘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부분이 전반부에 보도한 12시간 넘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청년이 택시 기사를 하기 어렵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의 고령화와 청년들이 택시 기사 일을 안 한다는 문제는 12시간 넘는 노동에도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받는 수수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와 법인 택시 사납금까지 채우고 나면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문제인데요.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번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정부 정책이 개인택시 업체만의 요구가 들어간 건지 약간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처음 보도했던 내용에 맞게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과 청년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오지랴 보건실>은 김혜영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돼서 한 두 가지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MBC에서 청소년과 학교생활을 방송으로 다뤄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두 진행자의 케미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즌 1보다 시즌 2가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더 높았는데요. 진행이나 내용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학생들의 고민도 다양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즌이 더해가면서 시청자들과 청소년들의 요구가 좀 더 반영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에 ‘저희 학교도 와주세요’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 학교들이 초기에 방영되었다면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고까지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형태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랴 보건실이라는 명칭도 좋았고 진행 내용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솔루션 해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현 위원

뉴스를 보면서 박지현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역 현안을 전달하면서 시청자가 실제로 궁금해 하는 부분까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8월 13일에 ‘민선 9기 대전시 지역 국회의원 원팀’ 보도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대전시장, 대전시당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발언들만 전달이 됐고 대전 시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진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층이나 인구 유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인터뷰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성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시청자가 추가로 검색하지 않게 뉴스에 핵심 정보를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기사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MBC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를 본 뒤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검색해야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8월 14일에 보도됐던 건인데요.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보도에서는 5개 매장이 재개장됐다고 했는데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지인이 문화점을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재개장으로 실제 방문하려는 시청자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자막이라도 명확하게 안내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토토줄 푸드페스타’ 보도 역시 매주 금토일에 개최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작 시간과 운영 시간 그리고 ‘중앙시장

화월통’의 위치 등 이런 지역 축제나 생활 정보를 다루는 기사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들로 한다고 명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다룰 때 기본적인 배경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 뉴스데스크에서 동서트레일 관련한 내용으로 대전 구간에 야영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의미 있게 봤는데요. 과연 이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동서트레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트레일이 무엇이고 대전에 어떻게 연결되고 대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동서트레일을 보도하지?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추진 배경 등을 간략하게라도 보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 전체 시청자 의견 처리 보고 건을 보여주시는데요. 프로그램별 시청자 의견도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올라오던데 답변을 따로 달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 의견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전체 시청자의견 하나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답변을 달지 않고 내버려두면 시청자의견을 그냥 올려놓고 관심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박지현 위원님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한 가지 생각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굵직한 정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단발성 보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7월에 광주MBC와 목포MBC가 각각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서 지역 기획 보도로 다뤘는데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정부에서 국립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남 대전 세종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지역 대학이나 대학 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획 보도해 주시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로 8월 25일 대화동 자동차 배터리 공장 화재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것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 보도에 좀 더 프레임을 맞춰서 보도하셨을 수 있을 텐데 큰 불에도 49명이 무사 했다고 하면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사전 화재 대피 교육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고 그치지 않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대피 교육 등이 있었다라고 짚어주신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4일에는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을 했는데 여전히 더워서 폐장에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떠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이 폐장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안전 요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각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짚막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MBC 뉴스 SNS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은 최신 뉴스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이나 대전MBC X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소식이 2023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플랫폼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이현욱 위원님께서 솜품을 활용해서 대전 지역 생활 밀착형 정보를 많이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콘텐츠를 운영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뉴스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구성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세세하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쪽으로 주목도 있고 선구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재접근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항상 완성형은 없겠습니다마는 접근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지상파에서는 아쉬웠던 정보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카이스트 관련 보도에서 대체 이미지 사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기관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모식도를 AI를 활용해서 실제 세포 내 이미지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뉴스에서는 텍스트로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이것을 시각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AI가 상당히 훌륭한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카이스트와 화학연구원, 생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연구 이미지 모식도 작업들을 시작했고, 방송사와 콜라보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실제 연구 보도 자료라든지 성과물

이 나올 때 피드백이 되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식도를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귀에 쉽게 들어오는 연구 성과들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요.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관 보도 관련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교권은 선생님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로 볼 때는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권에 대한 방어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역사회와 안전장치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 학생을 보호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교육권이거든요. 보호 장치들이 필요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습니다.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짚어보는 계기성 보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관을 신설했고, 대전은 아직 조례에 담겨 있는 상담 문제 부분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차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최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정립이 안돼서 교권 보호관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있지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실제 교권이 보호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조례제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 제정도 늦었고 전국에서 대전하고 세종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실제 조례 부분이 없다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단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라든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에 대한 문제들까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문제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항상 지역 의료의 부족한 현실을 얘기할 때 응급 의료의 부족함을 얘기하는데요. 더 나아가 소아청소년과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지역 의료 현실과 맞물려 있고 지역 소멸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 문제를 떠나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병원을 찾아서 뽕뽕이 도는 현실은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포함해 시시각각 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촉법 소년 보도 수상도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촉법 소년 문제점을 보도해서 민실위 상까지 3관왕을 수상했는데요. 연말에 기자회견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촉법 소년의 문제점들을 환기시켜 이후에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들까지 주목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민선 9기 정책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뉴스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AI가 많이 나오면서 AI 대전환에 대한 기획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AI가 어떤 개념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도 AI를 통해 민생 부문, 교육, 의료, 경제, 환경 부분들과 관련된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정책 방향을 세우는 기획단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정책 방향을 세팅할 것 같은데요. 그 세팅 내용들을 그냥 받아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우리가 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교부금 문제도 교부금으로 실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권 싸움으로 많이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 교부금을 그동안 그렇게 받았어?, 근데 교육 환경은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라는 게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제 갈등이 촉발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주목했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을 그 세월 동안 투입했어도 물론 적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실 환경이 바뀌지 않은 부분들,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도 짚어주셨는데요. 택시업계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기존의 관행과 현실과의 괴리, 개인택시 면허 진입 장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의 택시 이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층은 앱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거든요. 고령층은 키오스크 등 정보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택시 잡기도 어렵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버스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개인택시가 고령화된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의 보완성에 대한 택시의 문제들도 짚는 등 택시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민선9기 지역 국회의원들 공공기관 이전에 원 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와 닿게 소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막연하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면밀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재개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막으로 처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처리시간이 3~4초 정도 노출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나 쇼츠와 결합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소식들을 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 또는 추석 때 많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각 시군별로 한도나 사용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캐시백, 할인율 등 해당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

상파 뉴스 안에서는 제한되지만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트레일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과 취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성격 인지도 담고 싶지만 스트레이트 뉴스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산따라 길따라’ 코너를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둘레 길 등 길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주 4.5일제 또는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여가나 힐링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뉴스에서 담아보도록 고 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교육과 문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출입처 조정을 하면서 연륜 있는 기자를 배치했습니다. 교육 문제 등에 집중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 폐지에 대한 특별법도 이번에 입법이 됐지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기획 보도를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재 사고는 보통 사건사고 성격으로 다루기 마련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가 오히려 시청자들에서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방법, 특히 심폐소생술은 실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 교육을 어디로 가면 받을 수 있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부분들도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차단 하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보도를 주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대책도 이와 비슷한 부분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대전MBC 디지털 콘텐츠 중에 카카오, 엑스(X) 채널 말씀하셨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다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조금 더 주목도 있고 효율성 있는 콘텐츠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학교 예능 프로그램인 <오지랴 보건실>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는 저 희가 생각지도 못한 확장성을 말씀하셔서 좋은 의견이었고 저희 제작진에게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 초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할 때 ‘괴짜들의 행진’ 이라고 리포터가 학교에 가서 15분~20분 정도 학생들과 경연대회도 펼치고 대화를 하는 코너가 있었

는데요. 이 코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24년도에 교육청 3곳에 <오지랴 보건실>을 제안해서 제작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 지원작으로 신청해서 25년도부터 제작하게 됐습니다.

시즌1은 편당 제작비가 넉넉해서 MC 출연료와 카메라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시즌 2는 교육청과 배재대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편당 제작비가 50%수준으로 줄어서 MC로 하리무 씨와 남윤식 아나운서를 조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연령 차이 등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케미도 괜찮았고 촬영 분위기도 좋아서 밝은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MBC 계열사작품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들로부터 오랜만에 학교 예능을 봐서 순수해지고 기분이 좋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즌2가 끝나고 담당 PD들과 평가회를 하면서 내년에 시즌3를 하게 되면 상담 콘셉트를 2년 했으니 포맷을 바꿔서 학교 간의 대결을 통한 학교의 화합 세리머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 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오지랴 사무실’, ‘오지랴 청춘실’ 등 다른 조직으로 확장하면 어떠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더불어 사는 사회 등이 이슈인데 선한 오지랴의 영향력을 다른 조직으 로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기획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잘 종합해서 PD들과 함께 좋은 기획안으로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오지랴 보건실>과 지난번 <인생내컷>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후속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음에 시즌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후속 변화도 쿠키 영상처럼 담 을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잘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랴 보건실>의 학교 선정 관련해서는 대전지역은 대전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 내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선정했고, 충남지역 2개 학교는 충남교 육청이 정해서 보내왔고, 1개 학교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각 프로그램별 시청자 의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별 시청자의견은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PD와 작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제작진들이 매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하기는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강제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 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 제기가 한 번 됐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걸 기획 삼아서 편성

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면 개별 게시판을 없애고 총괄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백강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말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모든 위원님께서 각 분야 전문가이다 보니까 동일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관점도 굉장히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해서 저도 항상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MBC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활기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진종재 사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위원님들 참석 인원수와 관계 없이 회의 때마다 저희가 받는 자극이나 되돌아봐야 하는 입장의 강도는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방송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프로그램의 확장성과, 뉴스 소비자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도해 주고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항상 저희 고민거리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